

은퇴의 무한한 단계에 있다는 것은
계속 홀로 있으면서 끊임없는 기억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행운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행운의 고양된 선을 보며 기뻐다. 너희는 행운의 고양된 선들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바바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출생의 때인데, 그것 안에는 날짜, 시간, 특별한 징조들, 가문, 종교, 번영, 관계들과 직업이 있다. 너희의 행운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알게 된다.

너희 모두는 자신들의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 명확히 아느냐? 너희 모두는 언제 태어났느냐? 오늘날까지도, 너희들의 행운은 너희의 출생일과 별자리 운세로 안다. 그러니, 너희 모두의 별자리 운세와 출생일은 무엇이나? 너희의 출생일은 무엇이나? 너희는 언제 태어났느냐? 브라민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화신한 날이 또한 너희가 태어난 날이다. 브라민들은 브라마와 같은 날 창조되었다. 본래의 보석들의 날짜는 언제이나? 아버지가 화신한 날이 본래의 보석들이 태어난 날이다. (태어난) 그때가 언제이나? 이 합류시대는 브라마의 무후라트(브라마의 상서로운 징조의 때) 시기이다. 그러니, 모든 이들의 출생의 때는 브람무후라트(창조의 상서로운 때)이다. 너희의 별자리 운세는 무엇이나? 저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지는 별자리 운세에는 여러 다른 측면들이 있지만, 너희의 별자리 운세는 세계의 시혜자인 아버지의 그것과 같다. 이것은 너희 모두의 별자리 운세이기도 하며,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미덕들이 들어 있다. 징조들이란 목요일의 조짐들이다 (사트그루의 날) 너희의 가문은 가장 고양된 가문이다. 너희는 신의 가문에 곧바로 속한다; 너희는 신의 가문에 속한다. 너희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지위를 갖는다. 너희의 부는 무한하고 불멸하다. 너희의 종교는 브라민 상투이다. 너희의 지각의 선은 폭넓고 시간의 세 측면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아라. 어느 누가 너희보다 더 많은 고양된 행운의 선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희의 행동의 선은 너희가 끊임없는 카르마 요기이고, 쉬운 요기, 그리고 라자 요기임을 보여 준다 -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이 선을 명확히 그어주었다. 행운의 별들 안에서 왕관과 옥좌가 보여 진다. 그 어떤 행운이 이것보다 더 고양되었느냐?

오늘, 밥다다는 너희 모든 자녀들의 행운의 선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너희 모든 자녀들의 행운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의 행운을 보며 기뻐하느냐? 그 사소한 일들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너희는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숭배가 인형놀이와 같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만들고, 장식하고, 숭배한 다음 물에 빠뜨린다. 너희가 이것을 인형놀이를 하고 인형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운의 수여자 마스터인 너희 자녀들은 이따금씩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상황들이라는 인형들을 가지고 논다. 상황들은 진짜(중요한)가 아닌데도, 그것들이 너희로 하여금 카르마의 계정을 정리하게 하려고 또는 너희가 자신에게 다르나의 시험지를 주게 하려고, 또는 너희 자신의 단계를 점검해보라고 너희 삶에 새로운 형태로 다가온다. 상황은 살아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데도 너희 앞에 온다.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은 상들에 생명을 주어 자라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시샘의 인형들, 의심의 인형들, 상상의 인형들, 세력을 가진 인형들, 우두머리 행세하는 인형들을 만든다: 너희는 상황이라는 형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준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그것들을 사실인 것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들이 사실인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너희들은, “이거 진짜 상황이거든” 이라 말하면서 그 인형을 살아있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이에 관해 노래를 지었다: “빠져라! 빠져라!”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는 그 상황이라는 형상을 아주 많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장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인들이나 형상들에 보그를 바치듯이, 너희는 어떤 보그를 올리느냐? 너희는 지식의 요점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보그를 바친다. “이것은 항상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 “드라마에 따라, 현재 나는 단지 노력가일 뿐이야.”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카르마티트가 될거야.” 이런 갖가지의 지식의 요점들을 바치면서 너희는 모든 것에 관해 자신을 아주 확고하게 정당화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요리되지 않은(카차) 음식을 바치고 나서 잘 요리된 음식을 바친다! 그리고 나서 너희자신이 이 보그(지식의 요점들)를 먹고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동반자들과 가족들에게도 준다: 너희는 가족을 함께 앉게 한다. 너희는 그들의 지각들이 그 음식을 먹게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너희는 그 형상과 인형들을 지식의 대양인 아버지를 기억하며 물

에 빠뜨려야 할 것이다 - 과거는 과거가 되게 하면서 지식의 대양의 파도에: 자기발전의 파도에, 높이 뛰기의 파도에, 기억의 화신이 되는 깨달음의 파도에, 그리고 지식의 화신 마스터가 되는 파도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에 보내는 모든 시간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희가 신봉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형놀이는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가장 고귀한 시간, 지식, 이 합류시대의 모든 힘들의 보석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모든 사소한 일들이 무엇이냐? 인형들의 게임이다! 그런 게임들을 하는데 바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희의 고귀한 행운을 보아라.

현재의 이 때는 너희의 은퇴의 단계에 가깝다. 은퇴의 단계에 있는 자들은 인형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홀로 있으며 계속 기억을 한다. 그러므로, 무한한 은퇴의 단계에 있는 너희 모두는 끊임없이 한 분에 깊이 몰입해 있어야 하며, 그것은 너희가 계속적으로 홀로 있으며 끊임없는 기억의 화신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한한 은퇴의 단계이다. (밥다다가 3분 동안 훈련을 실시 하셨다) 너희는 이런 단계를 좋아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계속 기억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둘 다 원하는 것이 같다. :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동등해져서 끊임없이 그에 대한 기억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합쳐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동등하다는 것은 합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해하겠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냐?

이 씨즌이 바바가 말하는 실제적인 형태가 되는 그런 씨즌이냐, 아니면 단지 바바의 말씀만을 듣는 씨즌이냐? 시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의 신봉자들이 무엇을 외쳐 부르는지, 슬픔에 차있고 평화롭지 못한 영혼들이 무엇을 외쳐 부르는지, 종교지도자들, 과학자들, 정치지도자들이 무엇을 찾는지, 그리고 물질요소들도 외쳐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바바가 나중에 말해 줄 것이다. 모든 이들의 시혜자인 영혼들아, 모든 이들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인형놀이에 바쁘냐? 아차! 모든 이들이 외쳐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밥다다가 나중에 말해주겠다. 내일, 암릿벨라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다.

끊임없이 그들의 행운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끊임없이 동등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홀로 있으며 바바의 기억에 몰입해 있는 자들에게, 매 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성공의 화신들에게, 신봉의 놀이를 끝낸 지식의 화신 마스터들에게, 기억과 힘의 화신인 자들에게, 그런 수 백 만 배로 행운이 있는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을 만나심:

마이소르: 너희 모두 자신을 가장 고귀한 영혼으로 경험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친히 그의 집을 떠나 와서 너희 자녀들을 만나는 그런 고귀한 영혼들이다. 반 주기 동안 너희는 노래 불러 왔다: 당신의 집을 떠나 여기로 내려오소서, 그러나 너희는 그가 어떻게, 또는 언제 와서 너희를 만날 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너희는 기다리며 나날을 보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고 너희는 직접적인 만남을 축하하고 있다. 다른 어느 누가 그런 고귀한 행운을 가지고 있겠느냐? 신에게 말을 건넨다거나, 실제로 그와 함께 앉아서 톨리를 먹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너희는 꿈조차 꾸지 못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너희가 받은 성취들과 비교해 볼 때, 너희가 한 여정은 무엇이냐? 아버지는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 먼가, 아니면 너희가 있는 곳이 먼가? 너희가 행복할 때는 피곤하다거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너희의 4일 간의 여정동안, 너희는 끊임없는 요기의 단계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언제 그곳에 도착해서 바바를 만나지?” 그러니 이것은 끊임없는 요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 또한 수입이다. 브라민이 된다 함은 매 발걸음마다 수입을 벌고 어떤 고통도 절대 겪지 않음을 의미한다. 장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아버지를 더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다. 무신론자가 통증을 경험할 때조차도, “오, 신이시여!” 라고 말한다. 그러면 통증조차도 그가 신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합류시대에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다. 지금 이 때에, 너희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든 보물들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보물들이 무엇이냐? 평화, 행복, 희열, 사랑 등이 아버지의 보물들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매일 암릿벨라에, 완전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의 깨달음의 틈락을 찍어라. 너희가 자신에게 이 틈락을 찍으면, 끊임없이 명랑하게 지낼 수 있다. 너희의 틈락이 지워지지 않게 해라. 마야가 그것을 지우기 위해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계속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불멸할 지어다!”. 너희는 실버 주빌리를 축하한다, 그러나 황금시대의 단계에 있으면서 실버 주빌리를 축하해라. 너희는 매우 용감했다. 너희의 결과는 좋다! 너희 모든 자녀들은 좋고, 성숙하고, 경험이 있으며 힘들게 일한다. 너희는 훌륭한 증서를 받았다.

이중의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심:

너희의 물리적인 나라라는 면에서는 너희가 외국인 인 것처럼 너희 영혼들 모두 자신을 외국인이라 생각하며 움직여 나아가느냐, 즉 지고의 지역의 거주자라고 생각하며 움직여 나가느냐? 항상 이것을 경험해라: 영혼인 나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고의 지역에서 화신했다. 너희가 이런 깨달음을 향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희가 하는 생각들,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너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던 너희는 계속해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등대와도 같을 것이다. 물리적인 등대는 한 가지 색의 빛만을 비추겠지만, 여기에서 모든 힘의 등대들인 너희는 영혼들에게 매 단계마다 길을 보여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상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 앞에 누가 오든지 그들은 무한한 보물들의 광산 앞에 와 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오자마자, 모든 성취들을 경험할 그런 곳에 그들이 와있다는 것을 느껴야한다. 너희 모든 외국인들은 움직이는 등대로서 봉사해야한다. 아주 많은 등대들이 한 곳에 있다면 어떠하겠느냐? 모든 이들이 놀라움의 노래들을 부를 것이다. 너희 앞에 계속 한 가지 이미지를 간직해라. 너희는 브라마가 위쪽의 쉬브바바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그 아버지를 향한 신호여야 한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들이 이런 신호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있는지 체크해라.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대한 신호를 받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찬양하기 시작할 것이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른 노래들을 부르듯이, 그때가 되면 그들이 모든 곳에서 온갖 종류의 음악으로 너희와 아버지께 대한 찬양을 노래할 것이다. 그 때의 장면이 어떠한 것이며 너희 모두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마두반에요). 만약 너희 모두가 마두반으로 달려온다면 신봉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그때가 되면, 그들은 너희 모두를 밥다다의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는 자들로서의 비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때, 사람들은 밥다다의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는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전체 세상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것이며, 너희는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마음의 옥좌에 앉아 있는 자신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브라민이 된다 함은 모든 권리를 가진 자를 뜻한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권리들을 요청해야 하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모든 권리들을 받았느냐? 밥다다는 너희 모두를 옥좌와 왕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계속 본다. 너희는 옥좌에서 내려오느냐? 고귀한 사람들은 절대로 카펫 외에는 어디에도 발걸음을 디디지 않는다. 너희 영혼들은 모든 중 가장 고귀한 자들이니 너희의 발이 옥좌에서 내려 와서는 안 된다 (흙을 밟다); 너희는 너희의 옥좌에 머물러 있어야한다. 너희의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일을 하여라: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걷는 등, 모든 것이 너희의 옥좌에 앉아 있으면서 행해져야 한다. 이해하겠느냐?

너희 모든 이중의 외국인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봉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이가 지금 브라트의 쿵바카르나를 깨울 소리가 외국에서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커다란 소리를 내야 한다. 외국의 봉사에 대한 결과는 좋다.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계획들이 밥다다 앞에 놓여졌다.) 너희의 계획들은 좋다. 너희가 물론 이것을 하겠지만, 또한 그것이 마치 자석처럼 이끌릴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 소리가 온 사방에 퍼져서 누구라도 평화, 행복 그리고 사랑을 원한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라. 요즈음 사람들은 말 보다는 파동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한다. 강연을 하되, 그걸 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의 소리를 퍼뜨려라. 그러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로 갈증을 해소하듯이, 모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와 행복의 갈증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초가 확립되면, 설혹 어떤 이가 처음으로 왔더라도, 그 첫날에 어떤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끝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나, 그것은 너희 모두가 이런 단계에 끊임없이 안정되어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 그때

가 되면, 모든 이들이 마치 태양의 광선처럼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광선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너희 모두는 기분이 아주 많이 산뜻해졌다. 너희가 남들이 생기를 되찾도록 만드는 동안에도 너희 자신이 끊임없이 상쾌하게 지낼 수 있을 그 정도로 생기가 돌아왔다. 지금, 특히 한 가지 단어에 이중의 밑줄을 그어라. 그 단어가 무엇이나? “끊임없이”이다. 그것이 생각들이든, 말들이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끊임없이”라는 단어에 이중의 밑줄을 그어라. 끊임없이 기억의 순례에 머물고, 끊임없이 지식의 화신이 되고, 너희의 다르나와 봉사에 끊임없이 있어라. 너희가 떠나기 전에 모든 네 가지 과목에 이중의 밑줄을 그어라. 이해하겠느냐? 이 한 단어를 축복으로 가지고 가라.

큰 계획을 세우지는 말고 실제적인 계획들을 빠르게 세워라. 이를 위한 신호는: 너희의 몸과, 마음, 부와 힘들을 더 빨리 사용할수록, 더욱 유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것을 할 때이고, 나중에는 “너무 늦었다”가 될 것이다. 이것을 하려는 날짜를 기다리지 말아라. 내일이 아니고, 오늘도 아니다, 지금이다! 너희에게 날짜가 주어진다면, 너희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 날짜까지만 축적하게 될 것이며, 또한 너희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쓰면서 준비는 적게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날짜 의식이 될 것이고 영혼의식으로 지내지 못할 것이다.

메시지가 모든 곳에 도달되게 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는 불평이 없게 해라. 계속해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에 센터를 여세요”라고 제의할 것이다.

축 복: 강력한 태도를 통해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세계의 시혜자가 되어라.

세상에 있는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버지처럼 등대와 발전소가 되어라. 각각의 영혼에게 해방이든 삶 속의 해방이든 뭔가를 주려는 확고한 목표를 가져라. 모든 이에게 대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가 되어라. 너희는 지금 너희가 속한 장소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한 곳에 있으면서도 파동과 분위기를 통한 마음의 힘으로 세계에 봉사해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로 강력한 태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를 세계 시혜자 영혼들이라고 한다.

슬로건: 몸 없어지는 연습을 하고 낭비적인 생각들과 음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